

# 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화

김 외 숙(방송대 교수) · 박 은 정(성균관대 박사수료)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의 시간일지표 및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된 시간일지는 농가를 제외한 평일 2,525부, 일요일 805부이다.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유형화를 위해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간의 차이 검증 및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감 등 시간정서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을 축으로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을 유형화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균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여가중심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균형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점은 평일과 일요일에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다음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이 평일에는 일중심형 > 개인유지중심형의 순서이고 일요일에는 개인유지중심형 > 일중심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일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여부의 모든 변수에서 집단간 분포 차이가 있었고 일요일에는 배우자유무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생활시간배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시간사용만족감은 평일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일중심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며, 개인유지중심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시간사용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일요일에는 일중심형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개인유지중심형이 가장 적게 느끼며, 시간사용만족감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노인의 노동은 시간부족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시간사용만족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볼 때 적정수준의 노동시간확보가 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노인이 시간사용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농가와 비농가노인의 생활시간분석 및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함께 노인의 시간사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